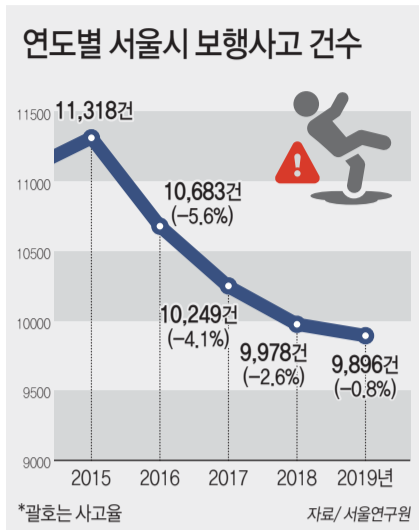


보행안전 위협하는 스몸비족

(스마트폰+좀비족)

서울시내 보행사고 감소세 둔화
스몸비 보행자에 책임부과 의견
보행사고서 20대 피해자 비율 ↑



최근 서울시내 보행사고 감소 추세가 둔화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억제 방법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젊은층은 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령층은 스마트폰 이용 금지 같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연구원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서울시 보행사고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근래 서울지역의 보행사고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 서울시 보행사고 건수는 2015년 1만1318건에서 2016년 1만683건, 2018년 1만249건, 2018년 9978건, 2019년 9896건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됐다. 사고감소율은 2016년 5.6%, 2017년 4.1%에서 2018년 2.6%, 2019년 0.8%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보행시 스마트폰 이용 금지 제도 마련'에 대한 호응도가 다른 나이에 비해 컸다. 30대 이하에서는 '사고 유발시 보행자의 과실 비율 부과' 선호도가 40대 이상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행사고에서 20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이나 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기기를 적극 이용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스마트폰 이용, 전동스쿠터 활성화로 변화하는 보행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배달원 이륜차(50.2%), 킥보드 등 PM

(43.1%), 타 보행자(41.5%)를 보행 중 불편요소로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78.3%는 보행 중 타인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몸비족이 거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방 확인을 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다'(73.9%)였다. 이어 '느린 보행 속도'(18.3%), '사선으로 걷는 행위'(5.1%), '소음 유발'(2.40%) 순이었다.

연구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억제 방법에 관한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전반적으로는 캠페인 같은 소극적인 개선방식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보행시 스마트폰 이용 금지 제도 마련'에 대한 호응도가 다른 나이에 비해 컸다. 30대 이하에서는 '사고 유발시 보행자의 과실 비율 부과' 선호도가 40대 이상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영준 부연구위원은 "더욱 적극적인 시민인식 개선 노력과 제도적인 조치, 다양한 부가장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선시대 전통 우비 착용한 경복궁 수문장

가을비가 내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의 경복궁 수문장들이 고증을 통해 재현한 조선시대 군사들의 우비용 의상인 유삼(油衫)과 쓰개(지삿갓, 갈모)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H, 위례신도시 1676세대 청약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블록 주소는 각 서울 송파구 거여동 651번지와 606번지로 경기 하남시와 인접해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나 마천역으로 가려면 마을버스로 10분가량 걸린다고 공사는 전했다.

5블록은 1282가구, 12블록은 394가구 규모로 모두 분양 대상이다.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

분양이 두 블록 합계 1386가구이며, 일반분양은 나머지 290가구다.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가 502가구로 가장 많고 생애최초 418가구, 다자녀 167가구 등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가구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분양가격은 5블록이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이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이다. 전용면적은 5블록 66·70·75·80·84㎡, 12블록 64·74·84㎡다.

/김현정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둔갑... 업자 구속

서울시 민사경, 원산지 위조 적발
올해 10월까지 고춧가루 35t 판매
허위 문구로 5억3000여만원 매출



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스티커 제거 모습.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0대 유통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유통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떼 뒤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고 원산지표시증명서도 위조하는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고춧가루 35t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 '해썬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라는 허위 문구로 광고해 5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

사됐다. 민사경은 올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에 국내산으로 올랐던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수산물품질 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2종이 위

국산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들 유통업체도 수사 중이다.

민사경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글로벌 디자인축제 '제 7회 서울디자인위크'

내달 31일까지 진행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내달 31일까지 전시와 포럼, 워크숍, 마켓을 아우르는 글로벌 디자인 축제 '2020 서울디자인위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디자인위크는 국내외 디자이너, 소상공인 등 디자인 관련 업계가 참여해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디자인 축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의 위안이 되는 디자인(Design for New Normal)'을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힐링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행사의 주요 7개 프로그램은 ▲일상의 예술, 그림책전 ▲행복의 기호들: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전 ▲제2회 휴먼 시티디자인어워드 ▲휴먼시티 아이디



어 포럼 ▲DDP디자인페어 ▲온택트 갤러리 투어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다.

/김현정 기자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우수사례 대상

특별교부세 1억 수여

고양시는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 받아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4개 사례를 선정하고, 본선 발표심사에서 전문가와 온라

인 국민투표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고양시에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수여된다.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 평가 받았다.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시행을 결정한 뒤 3일 만에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행정을 펼쳤다.

타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하는 등 K-방역을 선도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당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표준운영모델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1월 20일(금) 음력 : 10월 6일

수도권 날씨 2 ~ 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7 | 해질 : 17:18

지역별 날씨: 연천 -1/6, 동두천 1/6, 가평 0/7, 파주 0/6, 서울 2/6, 양평 2/7, 수원 3/6, 용인 3/6, 인천 3/6, 평택 3/7, 백령도 3/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